



역사적인 사건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됨

1975년 10월 3일 제 145 연차 대회에서 김볼 대관장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조직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찰스 에이 데이



조지 패트릭 리

진 알 쿡 장로가 칠십인 제일 평의회 의원으로 부름 받았다. 그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 집행 서기를 역임한 바 있다. 그 직책은 1975년 6월 25일 밀튼 알 헌터 장로가 서거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석이였다.

세 분의 칠십인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다. 그들은 이제 총판리 역원이 되었다. 세 분은 다음과 같다. 찰스 에이 디데이 장로, 십이사도 지역 대표를 역임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레 산타고 선교부장을 역임함. 조지 패트릭 리 장로, 애리조나나 홀브룩 선교부장을 역임함.

칠십인 제일 평의회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관리한다. 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선임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은 결국에는 70명이 될 것이다.

칠십인 정원회는 1835년 2월 28일에 조직되어 제일 정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정원회는 7인의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기능을 발휘했으나 정원회 회원들은 총판리 역원이 아니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9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다.

최초의 회장 7명이 나중에 조직된 정원회를 관리했다. 이들 7명의 회장이 최초의 칠십인 제일 평의회 구성원이었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 7명은 선교사 집행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며, 전세계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금년에 24개의 선교부가 새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선교부의 총수는 133개로 늘어났다. 교회 역사상 한 해 동안 이처럼 선교 사업이 크게 확장된 때는 없었다. 김볼 대관장은 현재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고 있지 않은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파견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리 선교사들 시장 접견

1975년 8월 11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의사도 찾아 갔고 학교 교장도 방문했다. 그들은 이리 시장님도 방문하여 복음 토론 날짜를 약속했다. 그들은 시장님에게 물문경을 전달했고 가정의 밤 교재를 선사했으며,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현재 이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엘스워드 장로, 스푸트 장로, 슈워드 장로 그리고 스웰 장로. 지역 책임자인 스푸트 장로는 "이리로 부름받은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며 회복된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캐빈 콜 형제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텐더 애플즈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캐빈 콜 형제가 그의 군복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다.

그의 편지를 함께 실는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의 일생에 매우 값지고 보람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미군으로 이곳에 배속되어 나는 낯선 나라를 눈으로 보았고 훌륭한 친구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텐더 애플즈와 뉴 호라이즌은 나의 진실한 친구들입니다. 이들 두 음악 그룹은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하나로 융화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들 음악 그룹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합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생활은 남을 돕는 생활이었습니다. 1973년 1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리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10월, 텐더 애플즈를 알게 되었고 나는 이들과 함께 여러 미군과 한국군의 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들의 공연을 돕는 여러가지 일을 익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즐거운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즐겁고 흐뭇했던 순간은 이제 끝이 나고 나는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을 이곳 한국 땅에 남겨 두고 떠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던 모든 한국 친구들에게 나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시를 한국인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 동근 형제, 박사 학위 받다

대전 지방부장단 제1보좌인 민 동근 형제가 지난 9월 30일 충남 대학교에서 「이념적 존재와 가치에 관한 연구-하르트만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민 동근 형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고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고마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 선교사

두 보건 선교사가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 두 선교사는 솔트레이크시 출신의 달라 디 손더즈 자매와 유타주 로간 출신의 앨리스 피쳐 자매이다. 이 두 자매는 간호학을 전공하였으며 한국 사람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가요 대회

지난 9월 16일, 코리아 헤럴드사 주최로 외국인 한국 가요 및 무용 대회가 열렸다. 해마다 연중 행사로 열리는 본 대회에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총 17개 부문중 여러 부문에 참여하여 많은 상을 획득하였다.

금년도 수상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켈튼 선 패튼.....가야금 독주
클래어 팔머와 그랜트 존스농악
콜린 유달, 그랜트 존스.....가요
브르스 박, 린 카터.....가요 "화가 났을까?"
마이클 유르티아가곡 "가고파"

명 사회자 박규석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장로들과 자매선교사는 교회의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이 기회를 좋은 선교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진주 지부 개설

1975년 9월 15일,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4명의 선교사를 진주로 파견하였다. 9월 28일 현재 한명의 회원이 있는 진주 지역에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열의가 대단하여 많은 구도자들은 11월에 있을 침례식을 기다리고 있다.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진주 지역의 발전 상황에 저으기 놀랐습니다. 진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곳에는 폴 윈더 장로, 도그 코울 장로, 레이 블랙함 장로, 문 호철 장로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표어가 든 샤쓰

한국 서울 선교부는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샤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밤바에 붙이는 스티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이 샤쓰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색깔도 노랑색과 갈색의 두 종류가 나와 있다. 가격은 1개에 1,500원이며, 어린이용, 성인용이 각기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하기 위하여도 이 아담하고 재미있는 도구를 사용하기 바란다.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

지난 9월 27일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는 연례 텐더 애플즈 자선 음악회를 가졌다. “뽀빠이”의 사회로 막을 연 이날 음악회에는 백 순진, 김 인순, 박 상규 등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이들의 공연을 더욱 빛내 주었다.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가 10월에 두번째 앨범을 내기 위해 연습중이다. 이 앨범에는 한국어로 된 노래가 실리며 성탄절 특집으로 나오게 된다. 녹음은 10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초에는 시판될 예정이다.



맥 윌버그 장로 독주회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의 반주자인 피아니스트 윌버그 장로를 모르는 성도는 드물다. 뉴 호라이즌이 낸 두개의 앨범중 대부분의 관현악 편곡을 그가 맡았었다. 최근에 그는 그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 주었다. 지난 10월 10일 윌버그 장로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연주한 곡목은 조지 앤실, 새뮤얼 바버, 조지 거쉰, 아론 코플랜드 등 유명한 미국 작곡가들의 곡이었다. 이 독주회는 대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세련되고 능숙한 기교에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서울 스테이크, 제2와드 기공식 갖다

제2와드의 오랜 숙원이던 신축 건물기공식이 지난 9월 13일에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감독단 및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와드 회원들은 새해 1월을 완공 예정일로 잡고 밤 10시까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층으로 지어질 2와드 건물은 분반 교실, 감독실을 포함한 11개의 방과 실내 농구장을 갖추는 최초의 와드 건물이 된다.

